

##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 차질 없이 이행

- 도정 4개년 계획 140개 이행과제 순조롭게 추진 중
-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조례 제·개정 제도적 기반 마련
- 박성호 권한대행 “도정 4개년 계획은 도정운영의 나침반이자 설계도, 책임감 갖고 각별히 신경 써달라” 당부

경상남도가 4월 1일(월)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월간 전략회의를 열고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회의는 도정 설계도 역할을 하는 도정 4개년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 도정 4개년 계획 개요

- ▶ (의미) 민선 7기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도정운영의 설계도이며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
  - ▶ (구성) 도정비전(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3대 목표, 12대 전략, 46개 과제
  - ▶ (목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
- ※ 도민보고회 개최 (2018.8.16.)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3대 분야(140개 이행과제)에 대한 주요 성과와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등 민선 7기 주요 정책들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3월 현재,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4개 이행과제는 이미 완료\*됐고 136개 이행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조직 개편 ②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③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④서부청사 민원해결

경상남도는 민선 7기 경남도정 출범이후 지난해 조례 제·개정,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 도정 4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도정 4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먼저, 다시 뛰는 **경남 경제 분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1.29.),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선정(2.20.)으로 경남 신경제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

제조업 혁신과 함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남형 창업생태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센터를 개소(3.13.)했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 확대 및 채용비리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3월에는 제로페이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3월 2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3.28.)됐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경남 복지 분야**로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1.25.)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추진한 경상남도 통합교육행정 첫 결실인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실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정책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전담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와 녹조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녹조 발생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도 수립했다.

가야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신청 후보에 선정(3.21.)됐고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여는 혁신 도정 분야**로 전국 최초로 당직과 재난안전 상황근

무 통합 운영하는 당직제도를 개선했다. 직원이 주도하는 도정혁신을 위해 도정 혁신담당관을 구성하고 표창절차 및 회계문서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사회혁신은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주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를 처음 실시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도 및 시군 간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도청 1층에 시·군 협력실을 개소하고 서부청사 민원실을 서부민원과로 확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도청 내 공용 공간은 공연·전시 등 문화갤러리 365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민이 주인인 청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도정4개년 계획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정 4개년 계획은 도정운영의 나침반이자 설계도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주 전국체전 유치 등 그동안 경남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 선정 결과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한편, 경상남도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도정 4개년 계획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도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도정 4개년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김동욱 주무관(055-211-26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